



2023년 설 가정예배

*영상에 따라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순서

예배인도: 허요환 목사

환영

인사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1장)

다같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경봉독

사도행전 3:1-10

인도자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설교

예수 이름의 능력!

허요환 목사

기도

허요환 목사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91장)

다같이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3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2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4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앞에 나아가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축도

허요환 목사

[설 가정예배 설교문]

예수 이름의 능력! (사도행전 3장 1-10절)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복된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길 빕니다. 우리는 이천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3년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남자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뛰게 하고, 피 흘리는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가난과 우울증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 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저녁 제사 이전에 드려지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성전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약간의 자선으로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곳에 불법적으로 흠이 있는 자가 앉아 있습니다. 역설이죠. 이처럼 세상은 이와 같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합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곳에 가장 추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희망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구걸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와 동일한 운명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던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확신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들은 왜 이리 당당할까?” 의아한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돈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주고자 했던 것은 물질로 절대 살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구원한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던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앉아 있던 자가 곧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는 감격하며 천천히 걸어보고 뛰어봅니다.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장애는 불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고,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정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의 저주가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걷고 뛰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힘이 생깁니다. 모든 저주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며 온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영원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드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가 설 명절을 맞이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